

## 평생학습시대의 교육시설 기능 강화

### Strengthening Function of School Facilities in the Lifelong Learning Age



조진일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Cho, Jin-Il / Director, Educational Facilities Research Management Center, KEDI  
 chojinil@kedi.re.kr

#### 1. 서론

오늘날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최근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OECD(2001)의 ‘What Schools for the Future?’의 보고서에서도 미래의 학교모습을 제시하면서 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래의 학교는 지역 사회센터의 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일본 문부과학성(1997)에서도 ‘새로운 시대의 교육시설’이라는 정책보고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시책으로 학교에 고령자 주간보호센터와 평생학습관 등 복합화 시설을 병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sup>1)</sup>

그간의 학교시설은 대부분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국민교육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학습자는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다.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생명을 마칠 때까지 끊임 없이 배우는 과정과 활동이라는 평생학습의 사전적 의미<sup>2)</sup>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나 자유롭게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교육적 인프라 등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의 경우 기존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구축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존의 학교시설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학

교의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까지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번 원고에서 효율적인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학교시설의 기능 강화를 학교시설 복합화<sup>3)</sup>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 2. 국내 평생교육의 정책 동향<sup>4)</sup>

지난해 9월 교육부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조사 결과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그 중 국민행복을 이끄는 주요 요소인 평생학습 참여율<sup>5)</sup>은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08~2012)”에 이어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마련, 발표하였다. 기존 제2차 기본계획이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지

1) 조진일 외(2013), ‘농산어촌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인프라 복합화 방안’의 머리말에서 일부 발췌, 한국교육개발원.  
 2)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2499&cid=522&categoryId=1226>.

3)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학교부지 내에 교육·문화·체육·복지·보육·복지·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학교 중심으로 복합적·입체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존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역커뮤니티 향상, 토지이용의 극대화, 외부재원 투입에 의한 다양한 학교 운영가능, 국고 및 지자체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음. 조진일 외(2013), 전제서, pp.9~11.  
 4) 교육부 보도자료(2013.9.13),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함.  
 5) 2012년 한국 35.6%, OECD 평균 40.4%, 스웨덴 73.4%, 핀란드 55% 등임.

원 및 전담기구 정비와 지역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금번 제3차 기본계획은 100세 시대 창조적인 평생학습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대학중심의 평생교육체제 실현, ②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제 구축, ③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④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등 4대 영역으로 구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영역별 추진과제

영역	추진과제
대학중심 평생교육 체제 실현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 지원체제 구축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전문성·투명성 강화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역량 강화 ▶지역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 출처: 교육부(2013),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상기 <표 1>과 같이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측면을 살펴보면, 대학시설 중심의 성인친화형 학습, 평생 직업교육 육성, 지역특화 및 산업체와의 연계 등과 온라인 평생학습이 가능한 종합정보 서비스망 구축,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활용, 학교 및 폐교시설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교육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따져볼 수는 없지만, 기존의 초·중등학교라는 물적, 인적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국내 여러 가지 여건<sup>6)</sup>을 감안해 볼 때, 합리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초·중등학교는 전국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또한 수월하기 때문이다.

### 3. 평생교육기관 및 학교 유휴시설 현황

2013년 현재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3,965개로,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

6)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3차 평생교육계획의 주요내용 및 개선 과제’의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이 대학에 편중돼 있고, 전반적인 투자도 부족하다”고 지적함(세계일보, 2014.3.3).

보면, 지난 6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 2008년 92개에서 2013년 703개로, 611개가 늘어났다. 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부설과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이 200개 이상 늘어났고, 유통업체부설 평생교육기관도 100개 이상 늘어났다. 반면, 산업체부설과 유·초·중등부설 평생교육기관은 오히려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이 876개로 가장 많았고, 언론기관부설 기관이 703개, 지식·인력개발형태기관이 687개가 있으나, 유·초·중등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은 고작 8개에 불과하였다.<sup>7)</sup>

반면, 가장 최근(2013)의 교육통계자료를 통해 현재 초·중등학교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초·중등학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건물 면적의 경우 학생 1인당 점유 연면적은 1980년 대비 2013년의 경우 초등학교는 약 7배, 중등학교는 약 6배 정도 증가되었다.<sup>8)</sup>

아울러, 류호섭 외(2011)<sup>9)</sup>는 유휴교실이란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급수가 줄고, 그로 인해 학급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현재 유휴교실의 수는 약 19,544교실(초등학교 9,202교실, 중학교 6,405교실, 고등학교 3,937교실)정도라고 조사하였다. 그리고 향후 저출산 등으로 인해 보다 더 유휴교실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된 유휴교실은 현재 단위학교별 여러 학습활동을 위한 다목적 교실, 부족한 특별교실의 보충 등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방과후 학교를 위한 교실, 돌봄교실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일부 조사한 학교의 경우 유휴교실을 그냥 빈 교실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로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측의 의사도 적극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류호섭 외(2011)는 일본의 유휴교실 및 폐교활용 사례를 들면서,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유휴교실 및 폐교의 활용을 위해 기존의 법이나 제도, 정책을

7)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평생교육통계편), p.16.  
8)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p.11, p.98.  
9) 류호섭 외(2011), 유휴교실의 실태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보고서. 이하 내용은 상기 보고서의 연구요약에서 일부 내용을 정리함. pp.1~6.

평생학습시대 교육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개정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공공시설에의 활용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시설에서의 활용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위한 법이나 제도 등도 개선한 것으로 소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지역의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응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부족, 아동들을 위한 학교 교육이외의 다양한 체험 장소, 박물관 등이 부족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이나 교류를 위한 시설 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유휴교실이나 폐교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4.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초·중등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당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교시설의 기능이 다양하게 확대, 강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의 초, 중등학교 내 다양한 평생학습시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1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시설

<사진 1>은 미국 St. Thomas School의 The Early Learning Center이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하는 장소이다. 교실은 초등학교의 일반교실보다 큰 규모이며, 2개 교실 사이에는 교사실(2인), 화장실, 유틸리티 공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사진 1. St. Thomas School의 The Early Learning Center



사진 2. 시오이히가시 초등학교의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사진 2>는 일본 아라가야 구립 시오이히가시 유치원+초등학교(荒川 區立 汐入東小學校)의 1세~5세 영유아를

위한 보육 및 교육시설이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도서관,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등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4.2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한 평생학습시설

<사진 3>은 영국 The Jo Richardson Community School의 'Castle Green'이라는 지역커뮤니티 시설이다. 학교와는 별도의 출입구를 계획하여 학생들의 정규교육 시간에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관,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을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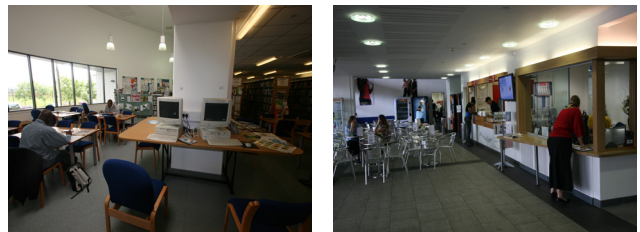


사진 3. The Jo Richardson Community School의 'Castle Green'

<사진 4>는 일본 하카타(博多) 초등학교부지 내 평생학습을 위한 공민관과 유치원, 초등학교가 각기 별도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시설 중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도공실, 실내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등은 공민관, 유치원과 데크(deck), 베란다(veranda), 브리지(bridge) 등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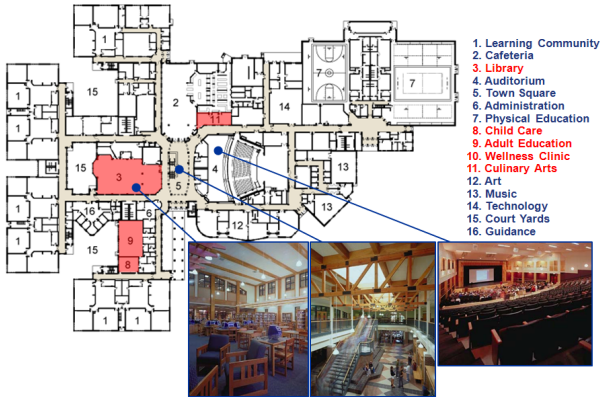
사진 4. 하카타 초등학교의 공민관(상좌), 유치원(상우), 도공실(下左), 도서관(下右)

4.3 기타 학교복합화 사업을 통한 평생학습시설

<사진 5>는 미국 Noble High School 복합화시설의 평면도이다. 내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미디어센터, 오디오 비주얼 센터, 방송스튜디오, 레스토랑<sup>10)</sup>, 성인교육

10) 학교 수업시간 중 커뮤니티에 개방하고 있으며, 2년 과정

센터<sup>11</sup>), 전일제 유아보육센터(all-day childcare center)<sup>12</sup>), 커뮤니티 의료 클리닉<sup>13</sup>)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 출처: 조진일 외(2013), 전계서, p.38.

사진 5. Noble High School 평면도

<사진 6>은 일본 이치가와 제7중학교의 복합화 시설로서 노인복지, 아동보육, 성인을 위한 지역문화센터 등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 및 복지, 편의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6. 고령자를 위한 문화수업교실(上左)과 목욕시설(上右) 아동보육시설(下左)과 대공연장(下右)

## 5. 맺은 말

앞서 해외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와는

(culinary arts program)의 요리수업에 등록된 학생들은 레스토랑에서 실습하기도 함.

- 11) Adult Education Center로서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12) 학생, 교사, 평생교육을 수강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13) Community Medical Clinic으로서 간호사가 학교에 상주하며 학생 및 지구(district)내 타 어린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달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학교부지 내 또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우선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강력한 법적, 행·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초·중등학교를 이용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신설 또는 정비가 요구된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정부부처간의 협조체제가 원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간에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기관 전담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전문기관에서는 우선 지역사회 여건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지역 맞춤형 시설유형 및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및 지역단위의 평생교육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 모니터링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셋째, 합리적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 물론 국고보조 지원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재원의 구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BTO, BOT, BOO, BTL 등)방식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교육부 보도자료,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3~2017)」, 2013.9.13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평생교육 통계편, 초·중등교육통계편), 2013
3. 류호섭 외, 유휴교실의 실태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4. 이성룡 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1
5. 조진일, 초등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2002
6. 조진일 외, 학교시설 복합화의 현안 진단 및 활성화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Position Paper, 2008
7. 조진일 외, 농산어촌 교육 및 지역발전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 인프라 복합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3